

남도장터, 초고속 성장... 매출 300억 전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전남도 '남도장터' 매출 집계 상반기 매출액 135억 달성 유통채널 다각화·홍보 주효



남도장터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

/전남도청

전남도가 운영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상반기 매출 집계 결과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한 13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준비에 대응해 심혈을 기울일 경우 올해 매출액 총 3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매출액 12억 3000만원 보다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종합몰 등 27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채널을 다각화하고, 코로나19 농가 돕기 관측·홍보 행사 등을 통해 '남도장터'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기에 가능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함께 제2차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학생·학부모 19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남

도장터 포인트를 지급한 방식의 마케팅 등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해 중대형급 쇼핑몰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호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며 "안정적인 남도장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정보화마을, 농촌융복합기업 등 별도 카테고리를 개설해 농어민과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올해 6월말 기준 전남 소재 907개 업체가 입점해 8535개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5만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동네방네



부산시와 휴앤쇼핑이 MOU를 맺고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에 컨택센터를 짓기로 했다. 사진은 휴앤쇼핑 본사 전경. /휴앤쇼핑

휴앤쇼핑-부산시 非수도권 최초 컨택센터 신설

휴앤쇼핑이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부산에 컨택센터를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는 물론 신규 인력 300명 가량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는 8일 시청에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김기문 휴앤쇼핑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앤쇼핑 컨택센터 부산 신설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휴앤쇼핑은 이번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는 처음으로 부산에 컨택센터를 새로 짓고 300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시, 예비-명품강소기업 육성

알앤스, 21세기 메디칼 등 8곳 사업 연계·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7일 차세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제4기 예비-명품강소기업'으로 지역 유망중소기업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신규 기업은 알앤스, 21세기 메디칼, 대산정보기술 등 3곳이고, 재 지정된 기업은 솔락, 케이씨엘피, 아이멧, 에이치디티, 에코비 등 5곳이다.

예비-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기업성장 사다리 중 첫 단계다.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으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성장을 위해 연

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기업 성장목표와 성장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한층 높아진 기술력으로 성장을 위한 체계를 다잡아 기업성장 사다리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광주시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4개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기관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와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은 물론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의 명품강소기업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성장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인 지역스타기업 46곳,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선도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32곳,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6곳이 각각 선정되는 등 기업 성장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자가격리자 관리센터 가동

광주 북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7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격리자들에게 전화해 지침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

광주 북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7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격리자들에게 전화해 지침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시책 발굴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6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김포시만의 혁신시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력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공모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30일까지로 김포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일자리, 소상공인, 관광산업, 취약계층, 농업인 등 전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터넷(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정장선, 쌍용차 정상화 '대정부 건의'

(평택시장)

대통령·장관·은행 등 건의문 발송

정장선 평택시장(사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측에서는 복지 축소와 임금납부, 근무시간 조정을, 회사측에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노사 양측의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자구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쌍용자동차 직원 5천여 명과 협력업체 포함 1만여 명은 또다시 2009년의 악몽을 꾸지 않을까 불안에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만이 쌍용자동차가 조기 정상화를 이룰 수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경북교육청, 미래 핵심기술 중점 교육 실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 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7일 중학생들에게 지능 정보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실감형미디어(VR, AR)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이들 교육과정을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12개 중학교를 선정해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미래 핵심 기술 교육 중점학교'는 2학기부터 자유학년제의 주제



경북교육청, AI, 빅데이터, IoT, VR, AR 교육 본격 시작한다. (지난해 8월 초등학교 SW교육 캠프) /경북교육청

선택 활동 시간에 인공지능(AI) 챗봇 만들기,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영어 수업,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팜 만들기,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나의 미술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카드수수료 지급 지원대상 확대

안동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만 지원했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예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군민 1인당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전남도 내년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전남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평화 정진으로 승화하기 위해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대중평화회의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목포시 등 전남도에서 20여개국 20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

각국 지도자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내외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세계 지도자회의 등 다양한 회의와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한다. /전남=양수영 기자